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주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

성경: 엡 6:18, 겔 36:37, 사 62:6-7, 요일 5:14-16상, 마 6:5-6, 9-15, 26:39

- I. 우주 안에는 세 뜻, 곧 신성한 뜻과 사탄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표현하고 그분께 다시 반향하기를 원하신다 — 사 14:12-15, 마 6:10, 7:21, 26:39, 빌 2:13.
- A. 생명나무는 신성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탄적인 뜻을 가진 사탄을 나타내며, 아담은 인간적인 뜻을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 — 창 2:9.
- B.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완전히 섞이고 자신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다. 또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이 그 안에 새겨진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판이 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계시의 사람이다 — 삼상 2:35, 3:21, 12:23.
- C.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필요에서 비롯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치가 없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 시 106:14-15, 비교 민 11:18-35.
- D.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반향하는 기도만이 어떤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하기를 배워야 한다 — 엡 6:18, 겔 36:37, 사 62:6-7, 요일 5:14-16상.
- E.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 나아올 때, 그 영계서 우리의 갈망을 그분의 갈망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 안으로 이끄시며, 그분의 갈망과 생각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귀중하고 무게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며, 사탄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 롬 8:26-27, 빌 4:6, 골 4:2, 12, 막 9:28-29, 엡 6:10-20.
- F. 기도와 모든 영적인 일의 참된 의미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시기를 의도하신다.
 2.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
 3.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말씀드려 반향한다.
 4.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신다.
- G. 하나님은 사람이 부활한 의지로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누리며,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하여 건축되기 위한 것이다 — 히 10:5-10, 롬 12:1-2, 엡 1:4-6, 9, 11, 22하-23, 3:16-19, 4:16.

H.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 막 11:22-26.

II.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말해 내는 반향이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움직임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었다 — 삼상 1:10-20.

A.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사람인 한나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수 있었다. 생명의 노선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바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교회를 얻으시도록 하는 노선이다 — 요 10:10, 마 16:18-19, 롬 14:17-18, 엡 1:22-23.

B. 하나님께서 생명의 노선에서 그분과 하나인 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그분은 이 땅에서 길이 있으시다.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분의 갈망의 성취를 위해 절대적인 한 나실인인 이기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 삼상 1:19-2:11.

III.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 안에서 기도하였다.” — 약 5:17(원문 직역).

A. 주님께에서 나온 어떤 기도가 엘리아에게 주어졌고, 엘리아는 그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

B. 엘리아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인한 자신의 느낌, 생각, 의도, 기분, 혹은 어떤 동기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

IV.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에 연결된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기도를 하는 이들만이 하나님께 참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엡 6:17-18, 단 9:2-3, 17.

A.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표현은 기도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사람이며, 심지어 보배로움 자체이다 — 단 10:11, 19, 9:23.

B. 다니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했다 — 단 2:14-23, 6:10, 10:1-21.

V.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 살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심지어 육체 되심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의 수준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다 — 창 13:18, 18:1-2, 13-15, 22, 약 2:23, 대하 20:7, 사 41:8.

A.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이고 친밀한 대화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 주신 것에 따른 친밀한 이야기였다 — 창 18:1-33, 롬 4:12, 딤후전 2:1, 8, 마 6:6.

B.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동안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 창 18:9-22.

1.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소돔’을 멸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갈 1:15-16, 2:20, 4:19, 고전 5:7-8.

2.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가능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 창 18:14-15, 21:2-7, 눅 18:27.
- C. 하나님은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계시하셨다 — 창 18:17-22, 비교 히 7:25, 사 59:16, 겔 22:30.
- D. 창세기 18장은 중보 기도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계시해 준다.
 1. 합당한 중보 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 창 18:17, 20-21, 19:27-29, 시 27:4-8, 히 4:16, 7:25.
 2.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지로는 암시적으로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창 14:12, 18:23, 19:1, 27-29).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 의도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르기를 배워야 한다 — 창 18:22-33.
 4.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그분께 애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했다 — 창 18:23-25, 롬 1:17.
 5.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다. 이것은 참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창 18:33, 롬 8:26-27.

VI.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 마 6:9-15.

- A. 기도의 원칙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 마 6:5-6.
 1.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많이 좌절시키는 것이 자아이며, 자아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일하기를 즐긴다 — 요 5:44, 12:43.
 2. 우리가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산다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다른 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를 것이다 — 사 45:15.
- B.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마 6:9상)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는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는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며”는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된다 — 마 6:9하-10.
 - a. 이 기도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뛰어날 것이고,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 시 8:1, 계 11:15.
 - b.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땅에 가져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땅이 회복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마 6:10하). 왕국 백성은 오는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는 방어하는 기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 마 6:11-13상.
 - a. ‘일용할 양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b. 왕국 백성은 (관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아버지께 자기들의 죄 빚과 실패와 죄과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요인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 마 6:14-15, 골 3:15.
 - c.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 마귀와 또 마귀에게서 나온 악에서 구출되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 요 17:15, 엡 5:16-18, 6:13.
3.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높이 찬양하는 기도, 곧 깊은 존경을 표하는 삼중 찬양으로 끝마친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아들에게 속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영께 속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수행된 결과로 아버지는 영광 안에 있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신다 — 마 6:13하.
 - a. 이처럼 주님의 기도의 본은 신성한 삼일성으로 시작하여 신성한 삼일성으로 끝난다.
 - b. 주님의 기도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 C. 이러한 중대한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인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해 주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천국의 지극히 높고 엄격한 모든 요구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신성한 은혜의 공급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의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에베소서에서 다루어진 교회의 열두 가지 측면들 중에서 주된 측면들은 새사람과 신부와 전투원이다. 새사람은 몸의 측면을 포함하고, 몸은 충만과 처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처음 열 가지 측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고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새사람 속에 모두 포함된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 미래를 위해 영원 과거에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새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새사람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갈망은 여전히 만족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대적은 여전히 패배당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와 전투원, 둘 다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계시를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부정적인 측면에

서 여전히 다루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처음 다섯 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으로 교회가 묘사되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한 전투원으로서 6장에서 발견된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어야 한다.

1928년에 니 형제님은 영적 전쟁에 관한 첫 번째 이기는 이들의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서 악한 자인 사탄이 최대한도로 폭로되었다. 니 형제님은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만일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 즉 세 가지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 천사장은 자신의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 그 교만이 악한 의도를 일으켰고, 그것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지에 더하여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이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서기 전에는 우주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 우주 가운데 이 싸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사장의 배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배역은 지금 국가들과 사회와 가정과 개개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초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나라들과 단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는 개개인들 속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성과 정욕 사이의 내적 전쟁을 체험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에 있는 다름에 있다.

사탄의 배역과 아담의 창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다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로운 인간 의지를 부여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억지로 사람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분이 아님을 알리셨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게 창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든지 간에 자유롭게 그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지식나무와 사람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가 있었다. 사실상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지식나무는 사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각각 의지를 갖고 있는 세 인격들, 곧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었다.

비록 세 가지 의지가 있었으나 싸움은 다만 두 편, 곧 하나님과 사탄만 관련되었다. 그 중요한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선택하느냐였다. 만일 사람의 의지

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함께 선다면 사탄의 의지가 최소한 잠시라도 수행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사탄의 의지에 편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잠시 동안 승리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즉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복음의 첫 번째 계명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은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가지 계명에 복종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며 물속에 침례 받아야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다. 출생 이후 우리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서 있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사탄의 의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마 4:17).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의 행사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그들은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다. 사람이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킨 다음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아야 한다. 침례를 통해 그는 사탄의 의지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골 1:13).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쟁하는 생활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월절 어린양을 먹은 후, 그들은 이집트 땅을 나와 군대같이 행진했다. 이는 그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먹은 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였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전쟁의 분위기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파라오(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러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파라오의 군대가 패배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를 인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싸우며 나아갔고, 좋은 땅 안에서도 싸우기를 계속했다. 이처럼 그들의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전쟁하는 생활임을 계시한다.

이미 본 대로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해야 하며,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도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아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여인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하고, 사랑과 빛 안에서 살며, 사탄의 의지를 정복하기 위해 싸운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위해 반드시 교회는 새사람과 신부와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3장, 572-576쪽)*

한나의 사역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많은 점들이 교회의 역사와 비슷하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우리는 아론

이 제사장으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면전에 가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에게 오는 것을 본다. 이 단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곧 사사들이 통치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통해 그들을 벌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함으로 부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거듭 발생했다. 이것은 연쇄 관계처럼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삼손 등의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읽을 때 하나의 원칙을 주의해 보라. 사사들의 능력이 강할 때는 커다란 구원이 있지만, 사사들의 능력이 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원수의 손에 빠졌다. 그들은 쇠약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범죄하고 또다시 부흥을 얻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원칙을 본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독립하면서 동시에 사탄을 향해 독립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든지 사탄의 능력에 떨어지게 되지, 중간노선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인해 원수의 능력 아래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의 백성은 계속해서 사탄의 권능 아래 있지 않고 항상 부흥을 얻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또한 교회의 역사이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교회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예비하시어 그분의 영을 그에게 주시고, 위임을 그에게 주시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또 쇠퇴하는 것을 본다. 부흥과 쇠퇴, 쇠퇴와 부흥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본다. 만약 내가 사사 시대 말기에 생활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역사는 다 알고 있고 오늘날 다시 낮은 수준에 떨어졌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이 국가를 부흥시켜 달라고 구해야 되겠는가? 오늘날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부흥과 타락을 보았다. 이전에 나는 루터가 인도한 부흥과 그 후에 뒤따라온 죽음을 읽었다. 웨슬리를 통한 부흥과 그 후에 뒤따라온 하락을 읽었다. 또한 다비와 다른 형제들이 가져온 생명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후의 쇠퇴를 읽었다. 이 긴 시간의 교회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새로운 것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무엘기를 보자. 사사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왕국을 향했으며 더 많은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왕국과 왕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사를 과도기에 사용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원하심은 다윗에게 있었고, 그분의 목적은 왕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무엘기상의 중요성을 본다. 이 책은 과도기와 목표 중간에 있는 과정이며 과도적인 시기의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는 대부흥의 시기도 커다란 타락의 시기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다. 우리는 항상 사사를 생각하지만 사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왕국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가 이러한 타락과 부흥의 순환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흥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을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

사무엘기상은 왕을 가져오는 사역을 대표한다. 여기에서는 사사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사장이며 동시에 신언자인 사람을 본다. 우리는 쉽게 부흥사를 주시하지만 그들은 과도기에 하나님께 사용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참뜻 가운데에는 뭍이 없고 왕을 이끌어 오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무엘을 얻기 원하신다.

우리는 배경을 보았으므로,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은 구절을 보자. 이 구절들에서는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다. 브닌나는 한나에게, “너는 자식이 없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보아라!”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 두 여인은 두 가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원칙을 대표하며, 두 가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역을 대표한다. 한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브닌나의 사역은 많은 자녀,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왕과 관계가 있는 이는 하나도 없다.

한나는 완전히 분별되어 여호와를 섬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아들이 바로 왕을 이끌어 올 사람이었다. 한나는 교만할 것이 없었지만, 브닌나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 그녀는 모든 자녀들을 두고, “나는 이것도 있으며 저것도 있으며 모든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깊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사사의 범주 안에 있다면 축복을 얻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또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그러한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브닌나가 더욱 많은 자녀를 낳기 바란다.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하나님의 눈길은 왕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이에게 주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가 자문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역, 즉 한나의 사역 안에 우리의 뭍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부흥이다. 그들은 사사의 원칙이 마지막까지 지속된다고 여기지만, 사실상 더욱 중요한 사역은 바로 왕을 가져오는 사역이다.

우리는 한나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며, 브닌나의 비교와 조소로 인해서 더욱 어렵다는 것을 본다. 한나가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며 울고 금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 이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역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며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사람은 금식하며 울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들의 무리를 얻기 원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무리를 얻기 원하신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출생의 근거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 곧 이기는 이를 산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방면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과거에 너희들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으며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

사무엘의 출생에서 우리는 신언자의 노선을 본다. 이 신언자들은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왕을 이끌어 온다. 한나는 신언자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과거에 그녀를 인도하여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일을 한편에 제쳐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으며, 그녀는 ‘반드시’ 아들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무엘기상 1장의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오는 사내아이이다. (*워치만 니 전집, 46권, 중심 메시지(2), 83-88쪽*)